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1호 【루계 제24809호】 주체104(2015) 년 1월 31일 (로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 OH 김 정 은 동 지 께 서 州 세 기 의 요 구 에 맞 게 개 건 된 울 륭 이 현 지 산 구 두 공 장 을 지 도 하 시 였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잘 보장해주 는것이 생산 못지 않게 중 요하다고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 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원산구두공장 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로동자들의 궁전으 로 완전히 일신되였다.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서 이 시 며 조 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원 산 구 두 공 장 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가 동행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과 개건공사에 참가 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7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 면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 과 생활환경을 최상의 수

준에서 보장해주어야 신발생산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 서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할데 대한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파업을 제시하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였다.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열의를 안고 한 게 웃으시였다. 사람같이 펼쳐나선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이 따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령도의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림으로써 불파 자욱을 새기신 원산구두굥장을 그 어디 구내에 건립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5개월 남짓한 사이에 개건공사를 끝내 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였다고,생산건물들과 주변환경이 돌아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 에 공장이 어떤 발전로정을 걸어

깨끗하다고,정말 멋있다고,걸만 는가고 뜨겁게 되뇌이시였다. 보고서도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꾸려놓고보니 혁명사적표식비와 새로 꾸린 연혁 사출작업반, 갑피직장, 제화직장을 위대한 장군님께 이렇게 희한하게 개건 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된 공장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전경을 바라보시며 몰라보게 변모되 가슴을 허빈다고,장군님께서 이곳을 소개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 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던 공장들을 현대화하는것은 한평생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꾸렸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개 치하하시였다. 파견해주시였으며 설계와 시공, 자재보 새 세기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선하기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 뒤떨어진 공장을 돌아보고 가슴이 아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통한 교양을 5대교양사업과 함께 실속 으며 종업원들이 원격교육을 받으며 팠는데 정말 마음이 개운하다고, 이것 풀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있게 벌림으로써 근로자들이 자기 일 대학과정안을 마칠수 있게 과학기술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이 바로 천지개벽이라고 하시며 환하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위대한 터에 깃든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을 가 식보급실도 훌륭히 꾸려놓았다고 하시 수렁님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키는 슴깊이 새기고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미 있 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생동하면서도 높이 평가하시였다.

안고 일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 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및 경영활동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 장의 로동조건과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일 신시켰다고 기뻐하시 였다.

경영활동의 정보화, 생 산 공 정 의 현 대 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결과 로력과 자재, 원가 를 절약하면서도 생산 량을 늘이고 제품의 질 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하시였다.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 할데 대한 당의 의도대 로 각계각층의 요구와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질좋은 구두들을 생산하 기 위해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짜고들고있 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구두의 무게도 몸소 계량해보시면서 신발을 경량화할데 대한 당의

왔고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방침관철에서도 전진을 이룩했다고

회의실, 리발실, 미용실, 목욕실, 식 당,침실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을 야외체육시설들, 휴식터를 잘 건설하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 두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장의 본보 경 애 하 는 김정은 동지 께서는 기,표준으로 전변시킨데 맞게 공장에 서는 질좋고 맵시있는 구두를 더 많이 비롯한 생산공정들과 문화후생시설들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 변 으 로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맞게 훌륭히 개건된 새 세기의 요구에 산 구 두 공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1 면 에 서 계속

특히 질제고사업을 기본으로 틀어 쥐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매봉산》 상표를 단 공장제품이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건한 원산구두공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 장이라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공장을 로동자들의 궁전이라고 부른다는데 그럴 만하다고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기 위해서라고 하시였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을 참관시켜 당이 보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구두공장을 개건한것은 단순히 이 공장 하나만 현대적으로 꾸리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공업 공장들을 원산구두공장처럼 전변시키

바라는 현대화가 어떤것인가를 실물로 개건공사를 당이 바라는 기준대로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신 사랑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기어이 관철할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관철한 김창룡 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공장의 종업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 동무가 사업하는 건설사업소의 일군 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들과 건설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시간을 내여 꼭 기념사진 도 찍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대한 원산구두공장을 개건한 다음 다시

원산구두공장의 전체 일군들파 원들은 공장을 로동자들의 궁전으로 일뗘세워주시였으며 또다시 일터를 찾아 주시고 대해같은 은덕과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 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경애하는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라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이 진행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를 혁명의 총검으로 영영 쓸

전법을 완성하고 전투비 전투조법과 지휘 및 협동 을 숙련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 항공모함을 가상한 섬에 대한 군종라격진행순차와 방법을 료해하시고 먼저 근위항공사단과 련대들에 전투출동명령을 하달하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침략의 해적선무리를 맞 받아 대지를 박차고 신속 히 조국수호의 하늘길에 올랐다.

미제침략군 항공모함을 하며 아군추격기편대의 습격항로를 포착하기 위 하여 하늘과 바다를 샅샅 이 훑었다.

영용한 우리의 전투비

4 변 으 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라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계 속 3 면 에 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 투비행사들의 초저공비행과 도약에 의한 습격기동을 보시며 정말 잘 라 오, 마치 우리 조국의 국조인 참매를 방불케 하오라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 해하시였다.

전투비행사들은 적항공모함의 중추 요소들에 대하여 불의적이며 련속적인 타격을 들이대여 적항공모함타격단이 작전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전투리탈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잠수함련합부대들이 비행대타 격에 얻어맞고 얼이 나간 놈들에게 수

면 대포를 내대며 원쑤들의 도발책동을

혁명적신념과 배짱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닮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무적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 격훈련은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공중 및 수중전법의 요구대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훈련은 미제가 새 전쟁도발의 도화 선에 불을 달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고 조선반도부근 작전수역에 기여들기 만 하면 적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은 론 우리가 마음먹은 적의 모든 목표가 부나비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톡톡 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침략군 항공모함라격단에 대한 군 종라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 서 적의 허점을 잘 알고 빨찌산식전법 으로 적의 중추를 호되게 답새기기 위 한 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한다면 항공

모함도 얼마든지 수장해버릴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종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 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들이 저들의 첨단군사과학기술에 대하여 으시 대고있지만 군사력대비에서 순수 과학기 술적평가만을 우선시할수 없으며 적과의 싸움은 결코 무장장비의 대결, 물리적힘의 대결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것에 대한 열 렬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는 우 리의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은 반드시 승리 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미해 군력사에 수치스러운 한폐지를 우리 세 대가 또 한번 써주자고 하시면서 미제 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 와 전률,쓰디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 을 통하여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체주의》요 뭐요 하면서 걸고들고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러전인 사회주의제도를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것이라고 공공연히 짖어대는 미친개들과는 더 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단호히 공언하시고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택 하는 그 어떤 형래의 전쟁, 작전, 전 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용무력 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되여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를 모시고 적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련대들과 해군 잠수함련합부대 장병들은 미제가 여기저

하는

기 끌고 다니며 요란하게 저들의 군사적 위력을 뽐내는 최신예항공모함들이 한갖 육실하고 비대한 변태동물로밖에 않는다고 하면서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령군술로 군건설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어뗘한 신형무장장비도 우리 군대를 놀래울수 없 다는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었다.

침략과 도발의 원흉,흉악한 강도의 무리 미제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생 존권을 O. OO1mm라도 침해하고 건드린 다면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참변을 악의 총본산인 미국본토 에서 당하게 될것이며 세계는 빈말을 모르는 백두산총대가 무섭게 분출하는 용암속에서 미제의 성조기가 어떻게 타 버리며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하노이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刀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이 담긴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면 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윁남공산당과 친선적인 웰남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윁남인민의 경애하는 호지명동지께서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마련하 여주신 조선과 윁남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지난 65년간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위업의 한길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여 왔습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선대수령들의 뜻과 념원에 맞게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 고 확신하면서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웰남굥산당의 령도밑에 호지명주석의 유훈대로 부강한 웰남을 건설하기 위한 웰남인민의 투쟁 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 로 동 당 제 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정

주체104(2015)년 1월 31일

윁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OH

선 로 동 당 제 1 비서

김 정 은 동

刀

나는 윁남과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1950년 1월 31일-2015년 1월 31일)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윁남당과 국가,인민의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웰남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호지명주석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시고 가꾸어주신 웰남공산 당과 조선로동당 그리고 웰남사회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지난 65년간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여온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지난 65년간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을 계승하여 쌍방의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의 리 익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을 위하여 힘있고 효과있게 그리고 심도있게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유훈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사회주의

건설위업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웰 남 공 산 당 중 앙 위 원 회 총 비 서

웬

푸

2015년 1월 31일

하노이

나라의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불멸의 기치 고전적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 경 애 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전환을 일으키자》에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접 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나라의 전반적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농산과 축 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 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 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 고 가르쳐주신데 이어 이번에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신 것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서 거 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강령적로작 《세포지구 축산기 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 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 자》는 나라의 축산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다. 로작 의 한문장한문장을 자자구구 새

겨갈수록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신 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는 인민의 어버이.절세의 애국자를 모시고 혁명하는 영광과 긍지로 하여 가슴이 막 부푼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의 글줄마 다에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이것을 계기로 나라의 전반적축산업발 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 게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원대한 구상과 담대한 배짱, 철의 의지 가 맥박치고있다.

나라의 축산업의 현 실태를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새로운 리 정표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볼수 록 가책되는것이 많고 찾은 교 훈도 크다.

령도에 의하여 도처에 현대적 인 축산기지들이 일떠섰고 그 능력도 대단하지만 정상운영대 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주저앉 은 단위들까지 나타났다. 모든 농촌들에서 운전군 운하리와 같이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들 을 잘 꾸리고 실리있게 운영하 였더라면 농장원들에게 매달 고기를 공급해주었을것이다.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도 적극

장려하지 못하여 농장원들의

생활이 윤택해지지 못하고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기본원인은 당정책의 운명 강령적로작을 깊이 연구하면 서 자기 사업의 결함과 교훈을 을 걸머진 우리 당일군들이 옳 구체적으로 찾아쥐고 분석총 은 관점을 가지고 한몸을 내대 지 못한데 있다. 많은 고기와 젖 화하여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 을 생산하고있는 단위일군들처 겠다.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을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 로 힘있게 내밀면서 당조직들 에서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 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세 우고 그 생활력이 나타날 때까 지 완강하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축산을 근기있게 내밀어 그 덕을 보고있는 단위 들의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 고 일반화하여 모든 단위들에 서 축산물생산열풍이 일어나게 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당 정책옹위전의 맨 앞장에 서서 정책적지도를 짜고듦으로써 당 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 해에 알곡과 남새, 버섯만이 아 니라 축산물생산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곽 범 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이미 꾸려 진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하겠습 LICH.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 에서 축산부문의 령도업적단위 들에서도 사회주의경쟁의 열풍 을 일으켜 축산물생산에서 비약 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어려 웠던 시기에 이르는 곳마다 현 대적인 닭공장과 돼지공장, 소 목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이 일 떠섰다. 그 능력은 대단하다. 그 런데 크게 은을 내지 못하는 축

산기지들이 적지 않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 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 상화하면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 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줄수 있 는데 일군들이 축산기지를 꾸려 놓는것으로 그치고 정상운영대책 을 바로세우지 않아 주저앉은 단 위들이 적지 않다고 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의 책임이 크다. 지난 기간 우리는 이미 꾸려진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 하도록 이끌지 못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

분과 의리를 지키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자 자구구 새기면서 우리는 이미 꾸려진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찾았다.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 화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 사업이 아니다.그것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업적이 깃들어있는 축산기지들 에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표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어 고기와 알생산을 빨리 늘이 도록 하겠다. 도처에 꾸려진 축 산기지들은 생산토대가 그쯘하 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생산 조직과 지휘를 어떻게 짜고드는

가 하는데 있다.

중요한것은 먹이보장이다. 고 기와 알을 비롯한 축사물생사 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열쇠의 하나는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불러일으켜 과학적인 먹이가공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 는것이다. 우리는 먹이소비량을 줄이고 축산물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 록 하겠다. 온도, 습도를 집짐승 들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보장 하도록 기술지도사업을 앞세우

과수농장들이 생산경쟁을 벌 리고있는것처럼 현대적으로 꾸 려진 축산기지들에서도 사회주 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 도록 하겠다. 특히 근로단체조 직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경쟁 요강을 잘 만들어 대중의 열의 가 고조되게 하는 한편 총화평 가사업을 제때에 하며 모범적인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 겠다. 그리하여 축산물생산에서 비약이 일어나게 하는것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에 제시

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겠다.

과 학 적 인 사양관리 립

지난 시기 연구소에서는 축산 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 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 였다. 하지만 우리 당이 바라는 응당한 높이에 올라설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크게 내놓지 못하

을 빛내이는 중요한 정치적사업

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이라는 판점을 가지고 일

오분열도식의 일본새 역시 전

진을 가로막고있는 장애물이

다. 1950년대에 제시된 풀

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

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 중도반

단함이 없이 내밀었다면 지금쯤

은 우리 인민의 식탁에 고기와

젖가공품들이 매끼 올랐을것

할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의 구 절구절을 새기며 우리가 찾게 되는 귀중한 교훈이 있다.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확

립할수 있게 연구과제를 제기하 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깨달았다. 지난 시 기 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제기 할 때 적은 원가로 더 많은 축 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더라면 고 기, 알, 젖생산에서 한걸음 크게 전진했을것이다.

우리는 축산물생산의 모든 공정을 과학화하며 합리적인 사양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 한 연구사업을 혁신적으로 해 나가겠다. 우선 비알굑먹이단 위를 알굑먹이단위만큼 높일 수 있게 하는 연구성과를 모든 농업성 부상 리 재 현

축산기지들에 도입하여 여러 가지 집짐승기르기에서 크게 은이 나도록 하겠다.소,양,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집짐승 을 위한 덩이먹이로 된 첨가제 를 축산물생산에 도입하며 하루빨리 온 나라를 고기생산 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염소들 로 뒤덮게 하기 위한 연구과제 들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앞선 인공수정방법들을 받아들여 모든 집짐승을 우량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 속 심화시키겠다. 그리하여 알 곡먹이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

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겠다. 장마철과 겨울철집짐승사양 관리방법을 완성하는데서 먹 이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중요

면서 증체률을 높일수 있는 과

우리는 말린풀과 풀절임생산 을 과학화하여 먹이단위를 높이 면서도 생산량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겠다.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 소장 신

애국의

임진 일군의 한사람으로서 뜨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 은 당의 령도따라 세포지구 축산 기지건설에서 새로운 영웅적위훈 과 혁신을 창조할 불같은 열정으 로 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 히 하고 인민군군인들과 돌 격대원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계획한 투쟁 목표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 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 들은 경험이 없고 부족한것이 많지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세포전역 에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 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력사적인 로작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우리 일군들과 돌격 대원들은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실 현의 개척자로서의 책임과 본분 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얼굴 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책

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 일해 왔는가? 이 물음에 자신을 비추 어볼 때 자책이 크다. 지난해 토 지개량과 앞선 재배방법도입을 잘하지 못하여 풀판조성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 였다. 뿐만아니라 단위별로 대상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고있다.

건설을 분담하고 시공조직과 지 도를 바로하지 못하여 일부 계획 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반복시공 을 하는 현상들도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험과 교훈은 일군

들이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 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끝내겠다는 결사 의 각오와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 지고 방법론을 찾아 완강한 돌격 전을 벌릴 때 혁신을 일으킬수 있 지만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 의에 빠지면 열려진 문으로도 나 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당의 뜻 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겠다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모든 잠재력 을 최대로 발동하여 축산기지건 설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키자. 이 것이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맹세이다. 우리앞에는 세포지구 축산기

우리 일군들은 애국의 마음으 로 심장을 불태우며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공조직과 지도를 옳은 방법론 을 가지고 참신하게 해나가겠 다. 소석회와 탄재도 내고 수십 만t의 유기질비료를 쳐서 토양 의 영양물질함량을 높이며 바람 막이숲, 보호숲, 물받이숲조성 을 계속 힘있게 내밀겠다. 그리 고 작물배치를 적기적작, 적지 적작의 원칙에서 잘하고 지대적 특성에 맞는 비배관리방법들을 완성하여 먹이풀생산량을 수십 만t으로 늘이겠다. 또한 세포지 구에 일떠세우는 살림집, 집짐 승우리와 축산학연구소, 축산물 가공기지를 비롯한 모든 대상들 을 용도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 게, 쓸모가 있으면서도 자연풍 치에 어울리고 먼 후날에 가서

그리하여 세포지구에 우리 식 의 대규모축산기지를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10월의 대축전장 에 떳떳이 들어서겠다.

도 손색이 없게 건설하겠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중앙현장지휘부 부책임자 리경식



경 애 십 하오 는 한 의 깊 에 로이서 작새 에겨 답가볼 경기 지기 지기 다.

우 리 나 라 의 박 위 성 , 김 금 혁 선 수 들 아데가르 이맘컵 국제청소년레스링경기대회에서 쉬

【테헤란 1월 29일발 조선 중앙통신】우리 나라의 박위 성,김금혁선수들이 야데가르 이맘컵 국제청소년레스링경기 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 취하였다.

29일 이란에서 개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로 씨야, 아제르바이쟌을 비롯한 10여개 나라에서 온 300여명 의 선수들이 참가하고있다.

남자자유형레스링 42kg급경 기에 출전한 박위성선수는 예선 과 준준결승, 준결승경기에서 우크라이나, 인디아, 이란선수 들을 보기 좋게 이기고 결승경 기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서 그는 빠른뒤돌 아잡기를 비롯한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아제르바이쟌선수를 2회전 40초만에 12:2라는 압 도적인 점수차이로 누르고 영 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김금혁선수도 남자자유형레 스링 50kg급경기에서 까자흐스 딴, 이란선수들을 이기고 결승 경기에 출전하였다.

아제르바이쟌선수와의 결 승경기에서 그는 불의적인 다리잡기 등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 6:0의 성적으로 우 승하고 영예의 금메달을 수 여받았다.



포전에 더 많은 거름을 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에서-본사기자 찍음

명천군 마산협동농장에서 농사차비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에서 는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뜻 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할 일 념안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

중앙통신】제20차 백두산상

농사차비에 힘을 집중하여

다. 일군들이 작업반, 분조들에 내려가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거름생산전투에로 불러일으키 고있다.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 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농장적으로 매일 100여 t 이상

제 2. 4 작업반이 거름실어내기 에서 제일 앞서나가고있다. 이 굣 작업반원들은 거름더미는 쌀더미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거름원천을 모조리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5일부터 유희오락경기가 벌

어진다.

로농통신원 김성철

의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고있다. 다음주에 경 기 들 【평양 1월 30일발 조선 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가 다음주에도 계속되며 2월

속에 평양체육관에서 30일

중 앙 기 판 일 군 체 육 경 기 대 회 부터 시작된 바줄당기기경기 지 자

2015년 2월에 일기와 기 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2일 (22시-24시) 5일 (1시-3시) 6일 (1시-3시)

7일 (1시-3시) 9일 (15시-17시) 13일 (20시-22시) 17일 (23시-24시) 21일 (13시-15시) 26일 (19시-21시) 청진지방

2일 (22시-24시)

5일 (12시-14시) 7일 (13시-15시) 9일 (2시-4시) 15일 (5시-7시) 17일 (23시-24시) 21일 (13시-15시) 23일 (15시-17시) 26일 (19시-21시)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안아온 군인건설자들의 빛나는 위훈

마식령스키장을 찾은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인민군군인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내고있다

인 체육문화기지인 마식령스키 장이 판광객들과 애호가들로 흥 성이고있다.

유치원어린이들로부터 머리 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각계층 인민들이 련일 찾아와 행복의 별천지를 펼쳐놓고있다.

중, 고급스키주로에서 재치있 는 기교로 살같이 아래로 내리 지치는 애호가들,스키며 스케 트, 썰매를 타는 재미에 시간가 는줄 모르는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의 야영생들과 이곳을 찾

은 어린이들… 마식령의 산발에 울려퍼지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커갈수록 이 들은 당의 구상을 받들고 인적 없는 깊은 산중에 애국의 땀방 울을 아낌없이 묻으며 시대의 거창한 창조물을 일뗘세운 군인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되새 기며 그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내 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불들과 인민생활 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 의재부들에는 우리 인민군장 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슴배 여있습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6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

안의 청년전위들이 사

회주의건설의 중요전투

장들에서 청춘의 슬기

와 애국의 열정을 바쳐

함흥시와 도급단위, 대학, 전

문학교청년들과 학생들이 궐기

모임을 가지고 수백t의 거름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새해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

로 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

가고있다.

▮ 었다.

선군조선의 재부이며 매혹적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 해운2동 리경실가족은 군인전 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라는 력사적인 호소문을 보내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숨결이 맥박치는 호소문을 무 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인민 군군인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마식령스 키장건설을 제기일에 끝낼 결 사의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

군인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 을 박은 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천연바위들과 험한 산발들을 깎 아내고 수십만m'의 면적에 총연 키주로들을 닦아놓았으며 호텔 과 삭도, 살림집 등 근 60개의 대상건설에서 매일 계획을 최고 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 직하고 그들은 단숨에의 공격정 신으로 불이 번쩍 나게 공사를 해제끼면서도 모든 건설물의 질 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 증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흰눈덮인 스키장과 산골맛이 나게 일떠선 건축물마다에 슴배 여있는 인민군군인들의 불같은 충정과 영웅적위훈을 깊은 감동 속에 새겨보며 평양시 평천구역

설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리들은 기쁨을 금할수 없었습 번영하는 선군시대에 사회주 의문명을 한껏 누리는 행복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삭도를 타고 대화봉에 오를 때 한눈에 안겨오는 스키주로들 과 수많은 시설물들은 우리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유정히 안겨오는 그 모든것들 은 험한 천연산악에 주로를 닦 고 멋들어진 건축물들을 일뗘세 운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우리 장길이가 근 11만m나 되는 스 모두의 가슴속에 말없이 새겨주 었습니다.

> 남들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할수 없는 거대한 공사를 그처 럼 짧은 기간에 완성할수 있은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웅대한 구상과 애국의 호소 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간직한 결사관철의 정신, 21세기의 새 로운 일당백공격정신입니다. 우리들은 당과 혁명앞에 어려

운 임무가 나설 때마다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진격의 돌파구 를 열어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울것 입니다.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마식령스키장에서 겨울철야영 의 나날을 즐겁게 보낸 창덕학 교 초급3학년 1반, 평성고등예 …난생처음 스키를 타며 우 술전문학교 초급3학년 1반 학

> 공업종합대학 학생 최영림,평 양판광대학 학생 서성혁,김숙 영,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학생 김수양 등 많은 학생들은 마식

> > 령스키장은 보면 볼수록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편지에 담았다. 한 어린 학생의 편지에는 다

생들을 비롯한 야영생들과 김책

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나라의 왕인 우리들의 여름궁전 이라면 마식령스키장은 겨울궁 전이예요.

인민군대아저씨들이 멋있게 건설해놓은 마식령스키장에서 우리들은 스키도 타고 썰매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 타며 즐거운 야영기간을 보냈 어요.

원쑤들이 우리들의 웃음소리 를 없애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 고 인민군대가 있는 한 우리들 의 밝은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 질거예요.

우리도 어서 커서 원수님의 군대가 되여 나라를 지키고 조 국의 미래를 지켜갈래요. …

인민들의 진정이 뜨겁게 어 린 감사편지를 받은 인민군군

진정하지 못하며 평양의 하늘 가를 경건히 우러러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이 나라의 인민들이여, 우리 군인들의 위훈을 말하기 전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부디 잊 지 마시라! 한여름의 무더위와 12월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고찾 으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해발 1 360여m의 대화

봉을 비롯한 스키장 그 어디에 나 뜨겁게 새겨져있다.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어렵고 중요한 임 무가 나설 때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을 제일먼저 불러주시는 늘같은 믿음이 있어 세계일류 급의 스키장이 솟아나 마식령 지구에서 사회주의웃음소리, 로 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

고있다. … 선군시대의 새로운 건설속 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문명의 산악을 일떠세우고 사회 주의강성국가건설의 일대 전성 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을 힘있게 선도한 군인건 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은 강성번 영할 우리 조국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투장들에 혁신의

들끓는 탄전에 나 간 함흥화학공업대 학을 비롯한 여러 대 학의 청년학생들은 며칠동안에만도 박토처리를

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는데 이바지할 일념밑에 함흥의학대 학 등의 청년학생들도 수많은 부식토를 리원군산림경영소 양

【조선중앙통신】

인들은 후뎌워오르는 가슴을 설의 중요전선 芃

도

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따라 시, 군청년동맹위원회 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함

벌어져 수십만t의 니탄이 생산 드높은 경쟁열풍속에 정평군 벌려 수만m³의 박토를 처리하고 의 청년동맹원들은 매일 계획을 120%이상씩 수행하여 근 4 000 t의 니탄을 마련하였으

며 신포, 단천시와 금야군의 청

년들도 돌격대를 뭇고 증산경쟁

으로 많은 량의 니탄을 확보하

남

금야청년탄광에 달려나간 차 광수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과감한 돌격전을 2 000여 t의 석탄을 캐내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였다.

도안의 대학, 전문학교학생들 이 겨울철방학기간을 리용하여 공장, 기업소, 사회주의농촌을

돕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진행

서

에

산, 단천지구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청년학생들은 자기 들이 마련한 작업도구, 소농기 구,지원물자들을 넘겨주고 로 동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생산 열의를 높여주었다.

또한 취주악과 기동예술선동 등 다양한 사회정치활동으로 전

기상이 나래치게 하 였다.

불이 번쩍 나게 해제껴 석탄밭 수동지구의 탄광들과 금골광 을 넉넉히 마련하는데 이바지하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

묘장에 보내주었다.

민족을 등진 사대매국노, 대결광신자들은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보안법》에 명줄을 걸고 정의에 도전하는자들은 수 치 스 러 운 파 멸 을 면 치 못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성명

최근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악명높은 비롯하여 우리와 접촉하고 교류하였기 《보안법》을 개악하여 통일애국단체들 을 강제해산하고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 기 위해 발악적으로 날뛰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법무부 장관이라는자 는 《2015업무계획》이라는데서 그 무 슨 《헌법가치수호를 통한 정체성확립》 을 올해 최우선과제로 내들고 《반국가 단체》와 《리적단체》들을 강제해산할 수 있게 《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줴쳐댔다.

이에 대해 남조선집권자는 《법을 무 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 루어져야 한다. 》고 하면서 부추겨댔다.

남조선집권자의 지령에 따라 지금 보 수패당은 《리적단체가 더이상 활동할수 없도록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통일애국단체들과 진보민주세 력말살을 겨냥한 《보안법》 개악에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쑈당 국의 탄압책동은 새해 정초부터 극도에

지난 22일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 원들을 《보안법》에 걸어 중형을 들씌 우는 폭거를 감행하고 그 무슨 모임에 참가하였다는 죄 아닌 《죄》로 이 당 관계자 130여명을 《보안법》위반혐의 로 수사하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다.

뿐만아니라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을

나 북남화해와 통일을 주장해온 시민단 체들과 각계층 인사들을 《보안법》위 반혐의를 들씌워 사법처리하는 등 광란 게 짓밟는 《보안법》의 잔인성에 우려 적인 《21세기 마녀사냥》을 벌리고 를 표시하고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보안법》 개악놀음 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 소동을 남조선의 자주, 민주, 통일세력을 근원적으로 말살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가려는 용납 못할 범죄적 망동으로 락인하고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단죄한다.

《보안법》으로 말하면 리승만역도에 의해 세상에 삐여져나오자마자 조국통일 을 가로막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 민 주적권리를 깡그리 짓밟는 반민족, 반통 일, 반인권악법으로 악명을 펼쳤으며 《유신》독재자를 비롯한 력대 통치배들 이 인민탄압과 집권유지를 위한 피비린 살륙도구로 삼아왔다.

남조선의 독재통치의 력사는 곧 《보 안법》이 광란해온 죄악의 력사이며 《보안법》이 살판칠 때마다 남조선은 인민들의 피로 얼룩졌고 북남관계는 파

국에 파국을 거듭하여왔다. 하기에 온 겨레와 남조선인민들은 물

당장 철폐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왔으며 위한 서툰 연극에 불과하다. 지어 남조선에 독재를 부식시키고 배후 조종해온 미국상전들까지 인권을 참혹하

그런데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응당 페 기처분했어야 할 력사의 퇴물인 《보안 법》의 칼날을 더욱 시퍼렇게 벼리고 그 것을 휘둘러 진보와 통일애국세력을 완 전히 초토화하려고 발광하고있다.

보수패당의 무지막지한 파쑈적횡포로 하여 지금 정의와 민주가 참혹하게 교살당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보안법》이 더욱 개악되고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의 광풍 이 몰아침으로써 《유신》독재시기를 훨씬 릉가하는 파쑈의 암흑기가 도래하

규정한 《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애국단 체들과 인사들을 《종북》으로 몰아 탄 압하는것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도발이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 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대한 로골 적인 도전이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범죄시 하면서 그 무슨 《신뢰조성》과 《대 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단체들도 화》를 떠벌이는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모독이고 우롱이며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남조선에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 파쑈악법이 계속 존재하는 한 언제가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고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전진도 가져올수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북남관계개선 과 통일을 위해서도 《보안법》은 개악 이 아니라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보안법》과 같 은 구시대적인 폭압수단에 매달려 북남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진보세 력을 억누르고 통치위기를 모면하며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한 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남조선당국은 《보안법》에 명줄을 걸 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로 향한 민족사 남조선파쑈당국이 동족을 《적》으로 의 흐름에 도전해나섰다가 수치스러운 파멸을 당한 력대 통치배들의 비참한 말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

>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패당이 벌려놓고있는 《보안법》개악놀음과 통 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책동의 범죄적정 체를 똑바로 보고 그를 단호히 저지파탄 시키며 《보안법》철페를 위한 대중적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1월 30일 평

핵문제의 본질을 오도해보려는 횡설수설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걸고들며 앵무새처럼 외 워대는 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지겹기 그지없 는 《북비핵화》나발이다. 얼마전에 진행된 세계 경제연단 4 5차 년차총회에 참가한 외교부 장판 윤병세도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남북관계와 동북아지역평화의 암덩 어리》라느니. 《북의 비핵화를 해결하지 않고서 는 평화통일》에 대해 말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 고 떠들었다. 이자의 망발이야말로 조선반도핵문 제의 본질을 오도하여 국제사회에 반공화국대결 기운을 고취해보려는 매우 불순한 수작이다.

그래도 명색이 외교문제를 주관하는 장관인데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과 발생원인정도는 알고 입부리를 놀려야 하지 않겠는가.

윤병세는 세계가 다 알고있는 조선반도핵문제 의 발생경위와 본질, 핵위협의 근원에 대하여 이 제라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 문제는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그 에 남조선당국이 극구 추종하여 북침핵전쟁도발책 동에 팡란적으로 매달리며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 협함으로써 산생된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7년전 남조선에 핵무기를 처음으로 끌어들여 세상에 공 포한것이 미국이 아니란 말인가. 미국은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남조선호전 팡들을 사촉하여 해마다 각종 북침합동군사연습 들을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명칭만 다를뿐 내용 과 형식에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기정사실 화한 악명높은 합동군사연습들이 해마다 계단식 으로 확대되여왔다. 이로 하여 우리는 세기를 이 어오며 항시적인 핵위협을 받아왔다.

만약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조 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버섯구름이 이미 치솟았을 것이다. 력사와 혀싴은 성군의 기치밑에 마련하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 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 고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천만번 정당한 자위적선택이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윤병세는 조선반도핵문제에 대해 너무도 암둔

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인 미국의 핵무기와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우리를 무작정 걸고들수 있겠는 가. 하기야 현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초기부터 《북핵포기》외에 더 배운 말이 없고 올해에도 남조선외교의 《력점》을 《북비핵화프로세스 가동》에 두겠다고 떠벌인 윤병세에게서 다른 말 이 나올리 만무하다. 이런 얼간망둥이가 있으니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 제문제에서 톡톡한 주견 하나 내놓지 못하고 외 교에서는 수치와 실패만을 거듭하고있는것이다.

윤병세는 그 누구의 핵무기와 《비핵화》를 운 운하기 전에 우리가 왜 미국의 핵을 문제시하며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은 핵문제로 우리를 걸고들 체면도 자격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남조선에서 미국 의 핵무기와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그대로 두고 《평화통일》을 떠벌이고있는것은 한갖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초보적인 상식도 모르는 윤병세따위가 횡설수 설한다고 하여 우리가 신념으로 선택한 길에서 물러서는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위적조치를 취 할 당당한 권리가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그 누구 도 가타부타할수 없다.

사태는 남조선당국이 핵문제를 걸고 국제사회 에서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며 북남관계 개선의 앞길에 고의적으로 차단봉을 내리려 한다 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윤병세가 아무리 망발을 늘어놓았댔자 그것은 저들의 더러운 정체 만을 드러내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대결광의 가련한 푸념질 로 만사람의 조소와 규탄만을 자아낼뿐이다.

윤병세는 세치 혀바닥이 화를 부른다는것을 명심하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는것이 좋다.

하였다.

철

나서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 시대는 크게 달라졌는데 우리 민 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 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호소따라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절세위인의 애국의 뜻을 따라 조국통일운동 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신심드높이 떨쳐나선 우리 겨레가 가슴속에 반드시 새겨넣 어야 할 귀중한 명언이 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일이 애국이고 분렬이 매국이들이 민족대단결을 지 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민 족대단결을 저애하는 사람은

때국노입니다. » 의 길은 민족대단결에 있으며 나 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조국 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민족대단 결위업에 한결같이 펼쳐나서야 한다는 고귀한 뜻이 담겨져있다.

5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 적으로 둘로 갈라지고 그 민족 사적비극이 70년이 되도록 지 속되고있는것은 참으로 통분할 일이다.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족은 아직도 북과 남으로 갈라 져 사상과 제도의 대립속에 민 족공동의 발전을 억제당하고있 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조선사람 이라면 누구나 민족이 당하는 이 불행과 고통을 외면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 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조국 통일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해 외의 온 겨레가 애국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며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쳐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 조국통

일을 생각할수 없다. 갈라진 우 리 민족이 자주적운명개척을 위 해 화해하고 굳게 단합하면 그 것이 곧 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올해신년사에 지적된바와 같이 우리민족끼리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진정한 애국 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 들 민족광동의 리익에 맞

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 하자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 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한다.

북과 남의 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과 제도만을 절대시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해치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이 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 여 민족의 단합을 거부하고

것은 곧 북남대결을 격화시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를 도 와주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 개 별적집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한 매국역적들의 추악한 망동으 로서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민족의 운명속에 개별적계급 과 계층, 개인의 운명이 있으며 민족의 발전과 륭성번영을 떠나 민족성원들의 행복과 밝은 미래 가 있을수 없다. 아무리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 개인도 민족의 리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리익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 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위업 을 위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 앙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 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며 대단 야 한다.

우국은 결코 애국이 아니다. 앉아서 걱정만 하고 한탄만 한 다면 날로 더해가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절대로 가실수 없다. 민 족분렬 70년이 되는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 어놓을 완강한 의지와 결심을 품고 민족대단결의 광장에 너도 나도 달려나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 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불신과 대결을 조장시킨다면 그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참다운 애국이며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애국자이다.

나라가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더욱 존엄높고 강한 민족으로 될것이며 통일된 우리 나라는 찬란한 민족문화와 강력한 경 제, 국방력을 가진 자주독립국 가로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될것 이다. 애국에 불타는 우리 민족 누구나 통일조국의 부흥번영을 바라고있다.

애국을 하려면 설사 지난날 동족대결의 길을 걸었다 해도 오늘에는 대담하게 과거와 결별 하고 민족대단결의 길, 자주통 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 진정으 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 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마음 과 뜻이 통하게 될것이며 애국 합,대단결을 적극 지향해나가 의 기발을 함께 들고 손잡고나 아가게 될것이다.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바로 그렇게 이룩된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명언을 심장속깊이 간직 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령도따라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 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 이 궐기해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종북》 몰이광풍은 천박한 《마녀사냥》

각 계 층 파 쑈 적 공 안 탄 압 을 현 《정권》이 통일진보세력 보수분자들의 편을 들면서 《보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 민보》에 의하면 14일 남조선 의 민가협량심수후원회,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 하여 진보활동가들을 탄압하는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재미동포 교수를 강제추방한데 이어 희맛 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을 끝내 구속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이들에 대한 당국의 공안탄압 과 보수언론들의 《종북》소동 은 근대파시즘을 떠올리게 한다 고 단죄하였다.

군사독재시기때와 같은 폭압 이 횡행하는 현실은 현 《정 권》이 결국 《유신》독재시기 로 복귀하고있다는 뚜렷한 증거

을 탄압하면 집권위기에서 벗어 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착각이라고 하면서 이제 멀지 않아 공안탄압분쇄투쟁이 폭풍 처럼 일어날것이라고 강조하 였다. 현 《정권》이 《종북》 몰이로 구속한 황선을 당장 석 방하라고 성명은 요구하였다.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 면 남조선의 민주언론시민련합 이 진보적언론에 대한 《종북》 소동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

얼마전 민주언론시민련합은 진보적언론을 헐뜯은 보수언론

과 극우보수단체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향과

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안산시민

들이 지금껏 통일에 대한 념원을

안고 조국통일운동을 활발히 벌

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노력

을 다해야 할 때이라고 하면서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한 현정세

를 타개하기 위해 온 민족이 힘

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단

체는 6. 1 5 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안산본부가 결성 10년

을 맞는 올해에 각계와 런대하

여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해

한편 20일 인터네트신문

나갈것을 결의하였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민족분렬

려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민주언론시민련합은 론평을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은 비리성 적인 《종북》 몰이에 날개를 달 아주고있다고 항의하였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사

안법》 페지와 미군철수 등을 주

장하는 사람은 《종북》으로 의

심할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설을 통해 재미동포에 대한 당 국의 탄압은 천박한 《마녀사 냥》이라고 비난하였다. 시설은 검찰이 재미동포 신은

미에 대한 강제추방을 법무부에 요청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는 그가 쓴 북방문려행기를 우수문학도서목록에서 삭제하 였다고 폭로하였다.

《마녀사냥》에 현 《정부》

가 뛰여들어 불장난을 벌리고있 는 꼴이라고 하면서 《종북》몰 이광풍의 끝은 어디인가고 지탄

극우익세력이 어마어마한 죄 목으로 그를 고발하였지만 혐의 를 립증할만 한것은 하나도 밝 혀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는것이 판명되였다고 단죄하였다.

또한 신은미가 강제추방당할 하등의 리유도 없다고 하면서 그는 공공안전을 해치기는커녕 테로를 당하였다고 밝혔다.

그를 강제추방시키는것은 명 백히 인권침해행위라고 하면서 당국이 나서서 인권을 짓밟는것 이 바로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라 고 사설은 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내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RO 무죄! <mark>판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mark> 헌법재판관은 역사와 국민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자주민보》에는

《민족이 살 길은

자주평화통일뿐이

다》라는 제목의 시가 실렸다.

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미국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면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체

제대결망상에 사로잡혀 동족에

대한 비방중상과 삐라살포 등으

로 대결을 격화시키는 보수당국

그러면서 민족분렬의 비극적

인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외세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의 살길인 자주통일의 길을

2013년 아동학대건수는 공

식 통계된것만 해도 6 790여

2014년 1월부터 8월까

에 이르렀다.

이런 지옥같은

사회에서 어린이

들은 설사 부모가

지만도 아동학대신고건수는 무

있다 해도 학대와 고통에서 벗

린이들이 《마음의 악성감기》 라고 하는 우울증에 걸려 신음

지금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어

망울도 터쳐보지 못한 어린이

이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을 비난단죄하였다.

건에 달하였다.

어날수 없다.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 였다.

Ю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 주의와 외세의존사상 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민 족자주의식은 민족을 강 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 게 하는 사상적힘이다. 민족자주의식을 지니면 작은 나라도 큰 나라로 빛날수 있고 민족의 강 성번영을 확고히 이룩할 수 있다. 자주로 존엄높 고 번영하는 우리 공화 🖊 국의 현실앞에서 온 겨 **○** 레는 그것을 다시금 확

____ 신하고있다. 반대로 사대주의와 외 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 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 는 가장 유해로운 사상 ■ 독소이다. 사대와 외세 의존에 매달리면 민족허 무주의와 굴종사상에 빠 지게 되고 남을 섬기며 그에 추종하다가 결국은 노예의 비참한 운명에 굴러떨어지게 된다. 사 대와 외세의존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도탄에 빠뜨리는 매국의 길, 망

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력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뼈아

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는 우리 겨레로 하여금 어떻게 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해온 조선민 족이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전락 되게 되였는가에 대해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다. 바로 사대와 외세의존때문이다.

대궐의 문을 지키는것마저 외 국의 파수병들에게 맡긴 지독한 외세의존병때문에 나라의 황후 가 잔악한 일본사무라이들의 칼 에 맞아 무참히 살해되는 비극 이 벌어지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던 삼천리강토가 《시일야방성대곡》의 처절한 통곡속에 비분에 떨었다.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먹히우게 된것 도 결국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숭배하고 섬기는 사 대주의때문이였다. 남에게 의존 할 생각을 가지면 제힘으로 해 낼수 있는것도 해내지 못하게 되고 종당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망치고만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숭미사 대주의에 빠진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그의 침략정책에 추종하며 나라 와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배족행 위를 일삼았다. 그것으로 하여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고조 되고 민족분렬은 더욱 심화되였 으며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에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였 다. 미국을 섬기며 그의 힘을 빌 어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려고 미쳐날뛴 극악한 친미사대매국 노들의 매국역적행위는 지난 세 기 중반기에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참혹한 재난까지 몰아왔 다. 미국이 없이는 순간도 살수 없는것처럼 여기는 숭미사대주

의가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것

지속되는 핵전쟁의 위험뿐이 다. 외세를 할애비처럼 섬기며 그와는 야합하고 동족과는 대결 하는 반역행위는 북남관계를 오 늘과 같은 파국에로 몰아넣고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냈다.

보다싶이 사대주의와 외세의 존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준것이란 재난과 불행뿐이다.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 우리 민 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도 해 소할수 없고 북남관계개선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도 이룩 할수 없다.

북과 남이 대화와 관계개선을 모색할 때마다 고의적인 긴장격 화책동과 반통일적인 간섭에 적 극 매달리면서 조국통일을 방해 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 다. 지금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 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면서 북남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고있다. 그 무슨 《싸이버공격》이라는 황 당무계한 론거를 내들고 우리 공 화국을 반대하는 추가제재를 발 동하고 남조선에서 북침합동군 사연습을 계속 벌리겠다고 공언 하며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반통일적망동에 온 겨레

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민족자주야말로 민족을 강하 고 흥하게 하며 우리 민족이 통 일되고 번영하게 하는 옳바른

길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악습에서 벗어 나 동족끼리 손을 잡고 민족의 자 주적발전과 번영의 앞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시대와 력사가 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하고 겨레의 통일념원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집대성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인 7.4 공동성명과 6.15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남조선에서 도 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을 반대 하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 을 이룩하기 위한 각계층 인민 들의 투쟁열의가 높아가고있다. 진보련대는 21일 서울에서 조국해방 70돐, 6.15공동

선언발표 1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개선과 민족대 단결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대 축전을 반드시 성사시킬것을 다 짐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 에서는 보수집권세력이 꾸며내 려고 하는 《통일헌장》을 배격

요즘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 는 《어린이집》들에서의 학대 햇위들로 하여 남조선에서 커다 란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명색이 1살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보 육시설이라는 《어린 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사건들은 부모들은 물론 사회

서 《어린이집》이 돈벌이수단

굣으로 알려진지 오래다. 오죽하 였으면 남조선언론들까지도 《어 린이집》이 아니라 《부정부패백 화점》이라고 개탄하였겠는가.

하나의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극심한

학대의 대상도, 특대형참사의

피해자도, 가장 품 안드는 돈벌

이수단도 어린이들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 한 교수는 당국이 《국민행

복시대》에 대해 운운하고있지

만 그들의 정책에는 아이들의

행복이란 말조차 빠져있다고

《국민행복시대》의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돌보아주 더우기 경악할 일은 남조선에 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미 래와 인권보장수준을 평가하는

으로까지 전락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 에서는 원장과 직원들이 저희들 의 배를 불리울 목적으로 철부 지 어린것들에게 오염된 음식찌 끼로 만든 죽을 먹이였는가 하면 어른들도 먹기 힘든 맵고 짠 음식들을 마구 먹인 죄행이 또다시 폭로되였다. 남조선에서는 이미 《어린이

부패행위가 성행하는 어지러운

공동선언, 10.4선언을 따라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목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모임에서

는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나

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과업들이

이보다 앞서 15일에는

6. 1 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

회 안산본부가 민족분렬의 력사

를 끝장낼것을 주장하는 모임을

열었다. 여기에서 이 단체 사무

국장은 올해는 조국해방 70돐

이 되는 해이자 민족분렬 70년

남조선에서는 어린이실종사 건도 매일같이 일어나고있다.

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남조 선에서는 매해 1만명의 아이들 이 가족의 품에서 사라지고있

진 면

다.대대적으로 감행되는 어린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 식을 찾아 정신없이 방황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상도 도 처에서 펼쳐지고있다. 이 얼마 나 가슴아픈 일인가.

학교폭력, 가정폭력방지는 남조선당국이 내걸었던 공약중 떠드는 《국민행복시대》의 의 하나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지난

이매매행위로 하여 남조선에서 는 수많은 아이들이 짐짝처럼 팔려가 모진 수난과 고통을 당 하고있다.

하고있다고 한다. 들이 사회악속에 시들어가고있 는 남조선사회에 미래가 있을수 없고 행복이 있을수 없다.

진면모이다.

위한 투쟁 선언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 면 24일 남조선의 금속로조가 서울에서 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생 존 권 쟁 취 를

단체는 먼저 서울역광장에서 당국에 로동안정 등을 보장할것 을 요구하는 투쟁선포식을 가지 였다. 선포식에서 발언자들은 현 《정권》이 새해벽두부터 정 리해고를 늘이기 위한 악정을 추진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전면적인 총파 업을 벌릴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 진 단체는 쌍룡자동차 해고로동 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화, 정리 해고 철폐 등을 당국에 요구하

였다. 북 침 전 쟁 연 습

책동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 의 소리》가 22일 미국과 남조 선군부호전세력의 합동군사연 습강행책동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파탄된 남북관계가 전 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이제는 합동 군사연습을 계속 고집하는것이 실질적인 리익이 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하였다. 당국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에 대해 보류적인 태도를 취하 는것도 하나의 리익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당국이 북과 의 대화국면이라는 실질적리익 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 할 까닭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 김향미 본사기자 리효진 집》이 보육시설이 아니라 부정 개탄하였다. 조국해방 7 0 돐이 되는 올해 은 전쟁의 참화와 세기를 이어 (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전 화: 교환 3 7 3 - 2 3 1 2, 편집국 3 7 3 - 1 3 2 8, 론설원실 3 7 3 - 5 4 2 8, 당력사교양부 3 7 3 - 5 5 2 8, 당생활부 3 7 0 - 4 5 2 8, 사회주의교양부 3 7 2 - 3 5 2 8, 제 1 3 0 0 3 호)(취급승인 제 3 호) 공업부 3 7 3 - 0 2 6 3, 농업부 3 7 3 - 5 6 2 8, 과학문화부 3 7 2 - 4 6 2 8, 조국통일부 3 7 2 - 4 8 8 2, 국제부 3 7 3 - 4 7 2 8, 사진보도부 3 7 3 - 0 7 1 2, 특파기자부 3 7 2 - 4 3 2 8. 편 집 위 원 회 7-510174